

개혁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래 전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티셔츠(T-Shirts) 3개를 한꺼번에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고맙고 그 옷이 너무 좋아서 아껴 입었습니다. 결국 몇 년 에 걸쳐 하나씩 꺼내 입었는데 3번째 티셔츠를 꺼내는데 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일 좋다고 여기는 것을 아끼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여 동안 옷장 속 가장 좋은 자리에 걸려 있던 그 옷을 꺼내는 순간 내가 생각했던 10여 년 전의 옷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깨에 옷걸이 자국이 선명히 나있고 하얀 계통이어서 색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것인줄 알았는데 더 이상 새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은 추억의 옷으로만 남을 뿐 입을 수 없는 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일 년에 한 번 종교개혁 주일을 맞으며 과연 나는 새롭게 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모든 것이 새롭고 인생에 복음의 냄새가 물씬 풍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지나며 옷걸이에 걸린 그 옷과 같이 자국은 있으나 전혀 새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에서 늘 체험적인 신앙생활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체되고 녹슬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사용하고 발휘하면 늘 새롭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년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며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만일 작년과 비교하여 혹시라도 뒷걸음을 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만일 믿음의 확신이 흐려지고 종교적인 생활로 돌아섰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새로움을 잃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24절)라고 하십니다. 나를 멈추어 있게 하는 이전에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계획과 결단으로 믿음생활 하십시오. 그 길만이 살아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입니다.